KDB DAEWOO

DAILY

2012. 12. 28 (금)

코스피지수 (12/27)	1,987.35P(+5.10P)
코스닥지수 (12/27)	492.08P(+9.32P)
KOSPI200지수 3월물	264.35P(+0.75P)
중국상해종합지수 (12/27)	2,205.90P(-13.23P)
NIKKEI225지수 (12/27)	10,322.98P(+92.62P)
원/달러 환율	1,072.20(-1.00)
국고채 수익률 (3년)	2.85(-0.03)
유가(WTI) (12/27 19:25)	91.04(-0.03)
국내주식형수익증권(12/26)	683,399억원(+40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2/26)	261,428억원(-299억원)
고객예탁금(12/26)	177,664억원(-5,371억원)
신용잔고(12/26)	39,730억원(-413억원)

시황전망
정책의 힘으로 희망을 찾다

주간 차이나 마켓 네비게이션
2013년 중국 경제: Mission Impossible <3>

크레딧 시황
Credit Weekly

주간 상품시장
홀로 상승한 WTI 유가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KDB대우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

투자전략 한치환 02-768-3053 chihwan.han@dwsec.com

정책의 힘으로 희망을 찾다

확장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희망을 찾은 2012년 증시

오늘로써 2012년 증시가 마무리된다. 2012년 코스피는 연간 9% 상승하면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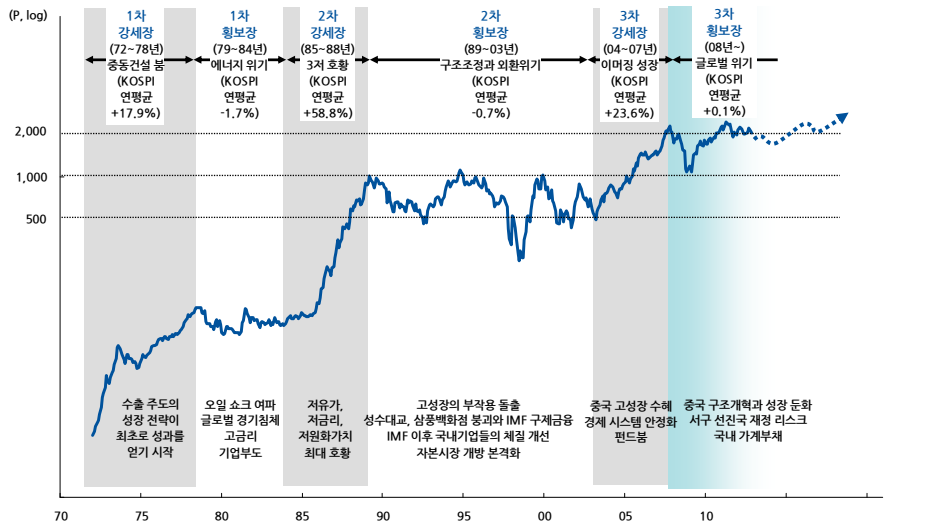
2012년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통화정책이었다. 유럽 ECB는 2011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LTRO에 이어 OMT까지 시행했다. 미국 FRB에서도 3, 4차 양적완화에 나섰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에 힘입어 4분기 들어 글로벌 Risk-On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이머징 펀드와 아시아 지역 펀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개선되면서 대부분 증시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3년 KOSPI는 1,750~2,200p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회복세가 예상되면서 올해보다는 다소 나은 모습이 기대된다.

2013년에는 다섯 가지의 성장 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미국 제조업 부활 수혜주, 2)동남아 성장 수혜주, 3)해외 관광객수 증가에 따른 인바운드 수출주, 4)스마트 디바이스 혁신에 기반을 둔 IT주, 5)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부양 수혜주 등이 2013년의 성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KOSPI 장기 추세 (Secular Trend) – 큰 틀에서의 횡보장 속 순환적인 회복세 예상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2년 글로벌 증시, 정책의 힘으로 일어서다

2012년 증시 마무리

오늘로써 2012년 증시가 마무리된다. 2012년 코스피는 연간 9% 남짓 상승하면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증시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확장적 통화정책

2012년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통화정책이었다. 유럽 ECB는 2011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에 이어 무제한 국채매입(OMT)까지 시행했다. 미국 FRB에서도 MBS매입을 단행한 3차 양적완화에 이어 단기채 매도와 장기채 매입을 동시에 시행(불태화 방식)한 Operation Twist 과정에서 소진된 단기채 매도를 중단하고 장기채 매입만 지속(태화 방식)하는 4차 양적완화에 나서기로 발표했다.

한국 역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확장적 통화정책과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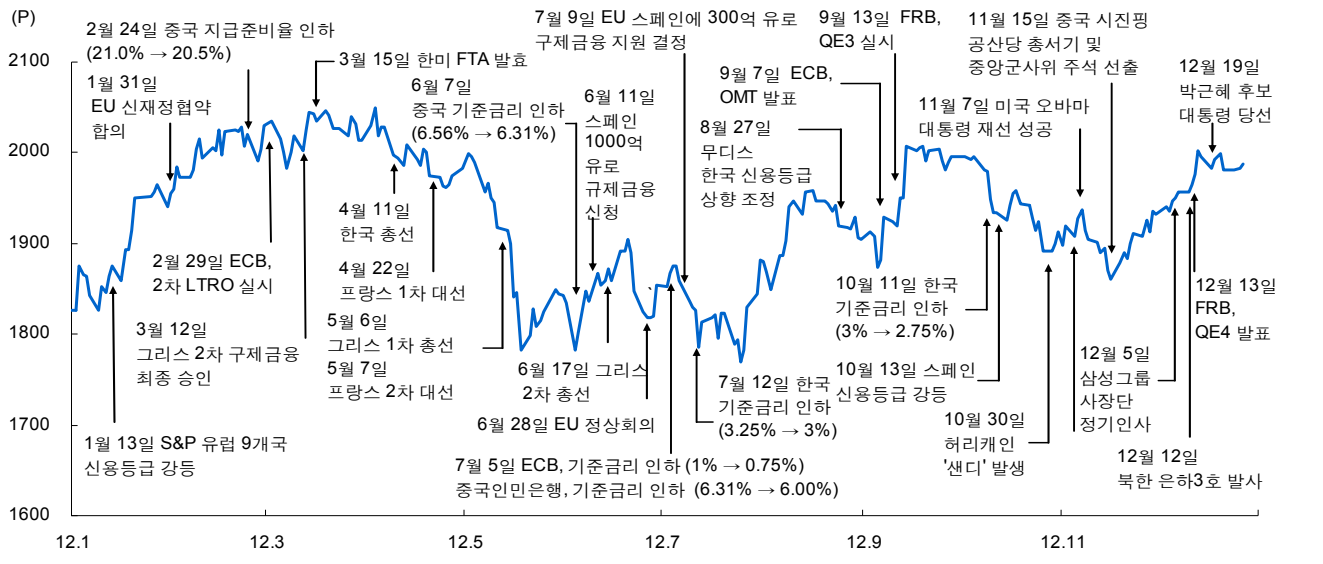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완화

연초 유럽을 중심으로 확장적 통화정책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유럽 PIIGS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과 구제금융 지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으로 글로벌 증시는 이내 조정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재차 확장적 통화정책이 도입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증시 역시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냈다.

G2의 경기회복 기대감 부각

4분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정에서 이른바 재정절벽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다시 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우려감은 완화되기 시작했고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었고 코스피 회복을 이끌었다.

그림 2. 2012년 코스피 및 주요사건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으로까지 확산된 확장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 재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자산 확대로 환율의 방향성 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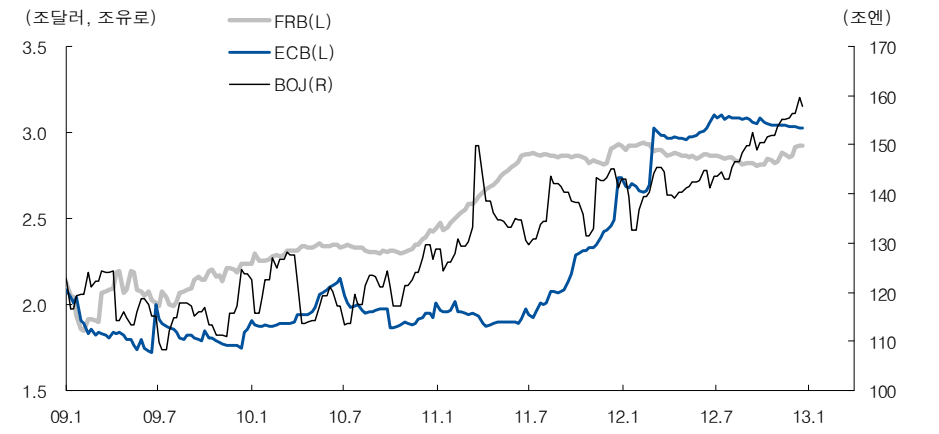
앞서 밝힌 대로 2012년 증시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자산은 확대되었고, 엔화의 약세와 유로화의 강세 전환 등 환율의 방향성도 달라졌다.

Risk-On 분위기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 확대되면서 상승세 나타나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에 힘입어 4분기 들어 글로벌 Risk-On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이머징 펀드와 아시아 지역 펀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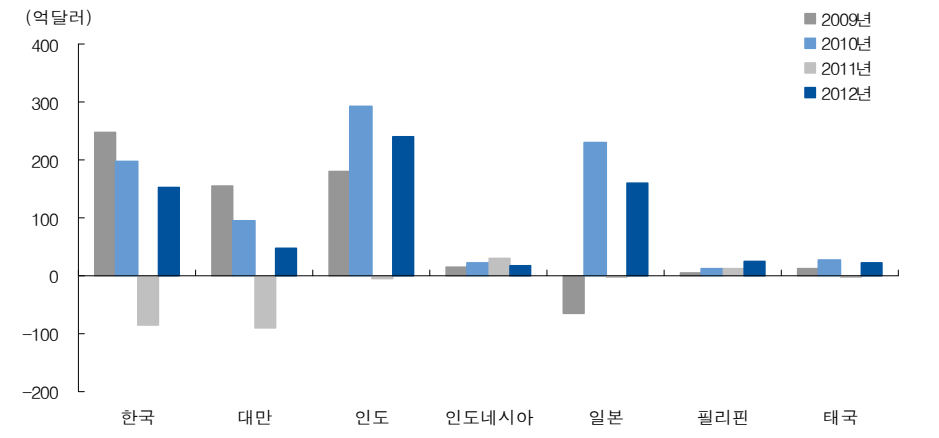
이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는 2011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크게 개선되었고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한국에서는 국내 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이탈이 지속되면서 투신의 순매도가 이어졌으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변동성이 낮아졌고 코스피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림 3. FRB, ECB, BOJ 자산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2009년 이후 연도별 주요국 외국인순매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3년 KOSPI 1,750~2,200p. 순환적인 회복국면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

2013년 KOSPI는 1,750~2,200p 예상

2013년 KOSPI는 1,750~2,200p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타깃의 상단 2,200p는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증시에서 기록됐던 12개월 예상 PER 고점 10.2배가 적용된 레벨이다. 1,750p는 실질 장부가치 수준의 주가(PBR 1배) 레벨이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회복세가 예상되면서 올해보다는 다소 나은 모습이 기대된다.

차별화 장세 지속 예상. '성장'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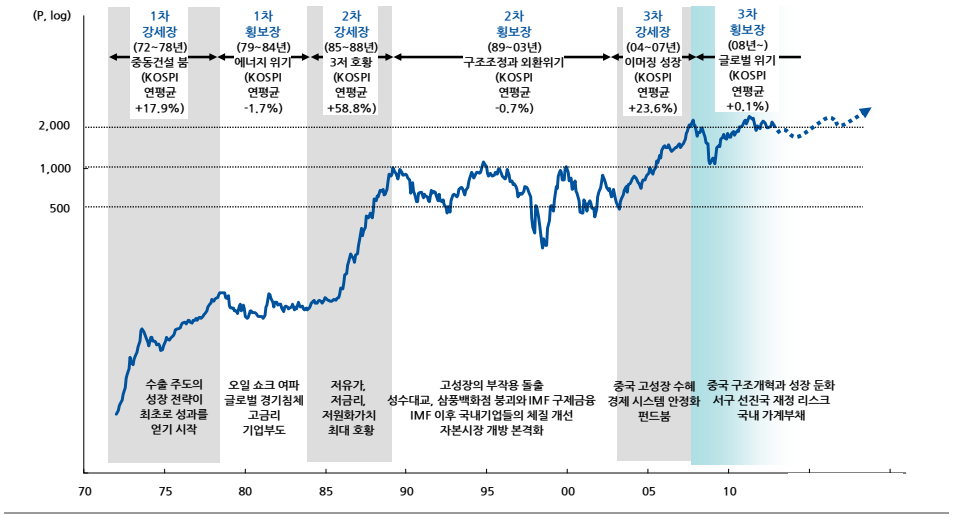
한편 2013년에는 다수 종목이 고르게 상승하는 양상보다는 2012년과 같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종목 선정(stock picking)의 중요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 선정의 기준은 '성장'이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주의 희소가치가 높아진다. 이익 성장없이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value style)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이익증가율이 높은 종목군(growth styl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 주목할 다섯 가지 성장 스타일

2013년에는 다섯 가지의 성장 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미국 제조업 부활 수혜주, 2)동남아 성장 수혜주, 3)해외 관광객수 증가에 따른 인바운드 수출주, 4)스마트 디바이스 혁신에 기반을 둔 IT주, 5)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부양 수혜주 등이 2013년의 성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KOSPI 장기 추세 (Secular Trend) – 큰 틀에서의 횡보장 속 순환적인 회복세 예상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2012년 KDB대우증권 데일리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새해에도 투자자 여러분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로벌 경제 허재환 02-768-3054 jaehwan.huh@dwsec.com
최홍매 02-768-3439 hongmei.cui@dwsec.com

2013년 중국 경제: Mission Impossible <3>

중국의 부패는 단순히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부와 정부와의 주도권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요악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패 척결'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정부 또는 공산당의 자원 배분과 부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시장중심으로 변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부패 척결은 기득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쉽지 않은 부패 척결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고위 관료들의 이민 러시와 고질적인 부패 문제

중국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정치적인 개혁이 필요,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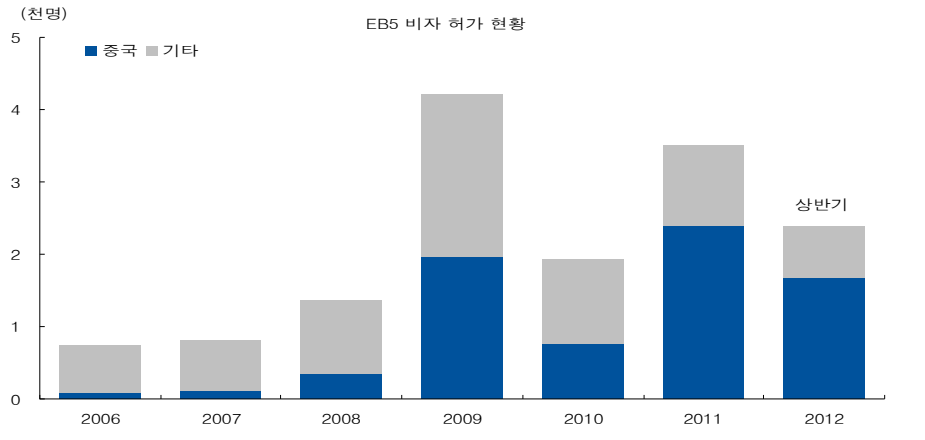
지난주까지 필자는 본란 '2003년 중국 경제: Mission Impossible'에서 2013년 중국 경제가 개혁을 위해 경제성장률이 2012년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고, 적어도 2013년 3중 전회까지는 개혁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실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주에는 개혁의 중요한 대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패' 문제와 중국 정부의 척결 의지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각한 중국 부패현상,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려 해외 이민도 급증

부패 문제에 관한 한 중국도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부패 문제로 중국 경제가 위기가 겪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중장기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부패 척결이 문제가 되자 자산을 지키려는 중국인들의 해외 이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 이민을 의미하는 EB-5 비자 신청건수는 2006년 이후 급증했다.

그림 1. 중국을 떠나려는 부자, 고위급 관료 등 투자이민 신청건수 증가



자료: 미국 이민국, WSJ, KDB대우증권 리서치

중국 만의 독특한 '부패'의 특성, 그러나 신지도부의 단호한 척결 의지

개혁개방이 후 자원배분이나 부를 갖도록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산당 부패 생성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중국의 부패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간단히 말하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부가 경제주체(기업 또는 지방정부)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산당 또는 정부는 자원배분과 경제권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뿌리깊게 만연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공산당이 기업들이나 지방정부에 대해 경제적 부를 갖도록 허용하거나 자원(자본/인력 등) 및 개발 계획을 승인해주는 대신 경제적 부가 결국 공산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뇌물(?)을 통해 나름대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의 부패는 "통제 불능"이 아니라 "통제 강화"시키는 방식

일반적으로 부패는 '통제 불능'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반면, 중국에서의 부패는 결국 공산당 즉 정부가 정부의 통제권을 재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 불능'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부패 척결'은 지도부의 과제인 동시에, 공산당의 자원배분과 부에 대한 결정권 포기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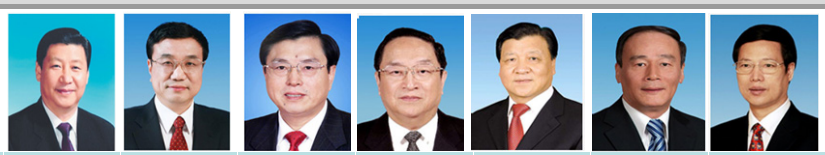
이러한 정치 및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관료들의 개별 문제로 인식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패 척결'이 갖는 의미는 정부 또는 공산당의 자원 배분과 부에 대한 의사 결정권에 대한 포기와 자원과 부에 대한 배분이 시장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취임이 후 '부패 척결'화두와 왕치산 부총리의 중앙기율검사위 임명도 상징적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 당서기가 취임 직후 '부패 척결'을 화두로 제시한 점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왕치산 부총리가 중앙기율검사위를 맡게 된 것도 상징적인 시사점이 적지 않다.

물론, 시진핑 당서기가 언급한 '부패 척결'이 어느 정도의 개혁을 의미하는 지를 파악하기는 이르다. 그저 신지도부 등장과 더불어 의례히 언급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왕치산 부총리와 같은 경제 전문가를 중앙기율검사위를 맡도록 한 것은 상당히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진핑 당서기가 강한 어조로 '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고, 추진력이 강한 왕치산 부총리가 부패 척결을 지휘하게 된 점은 이러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2. 중국 최고 권력인 정치국 상무위원



성함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직위	당 총서기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국가 부주석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상무부총리
나이	59	57	66	67	65	65	66
계파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학력	칭화대	베이징대	김일성대	하얼빈군사대	중앙당교	시베이대	샤먼대
고향	산시성	안후이성	랴오닝	저장성성	산시성	산시성	푸젠성

자료: 언론보도 취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국가 자본주의 차원에서의 必要惡, 그러나 근본적 해결은 한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부패개선이 어려울 것

문제는 신 지도부의 의지와는 달리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즉, 정치 개혁으로 대변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부패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어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가 투명성조사에서 중국은 하위권

예컨대, 국가들의 투명성과 부패 정도를 조사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중국의 부패 순위는 2012년 기준으로는 세계 174개국 가운데 80위 수준이다. 태국/인도/몽골/필리핀 보다 조금 높다.

중국의 부패지수는 2001년이 후 개선의 조짐이 없음

문제는 중국의 부패 지수가 2001년 이후 별로 개선의 조짐이 없다는데 있다. 물론, 조사 대상 국이 2001년 91개국에서 최근에는 174개국으로 늘어난 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국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부패 순위는 2006년 70위에서 2012년 80위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10여 년 동안 부패 문제는 악화되었고,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부패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

중국의 부패 문제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악이며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중국 신지도부가 이를 개혁하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구호와 담당자 교체 만으로 중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표 1. 국가별 부패 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아시아 내 순위	국가	2001년 순위	2006년 순위	2012년 순위
1	뉴질랜드	3	1	1
2	싱가폴	4	5	5
3	호주	11	9	7
4	홍콩	14	15	14
5	일본	21	17	17
6	부탄	-	32	33
7	대만	27	34	37
8	한국	42	42	45
9	브루나이	-	-	46
10	말레이시아	36	44	54
11	스리랑카	-	84	79
12	**중국**	**57**	**70**	**80**
13	태국	61	63	88
14	인도	71	70	94
14	몽골	-	99	94
16	필리핀	65	121	105
17	Timor-Leste	-	111	113
18	인도네시아	88	130	118
19	베트남	75	-	123
20	네팔	-	121	139
20	파키스탄	79	142	139
22	방글라데시	91	156	144
23	파푸아뉴기니	-	130	150
24	캄보디아	-	151	157
25	라오스	-	111	160
26	미얀마	-	160	172
27	아프가니스탄	-	-	174
27	북한	-	-	174

주: 2001년은 조사 대상 국 91개국, 2006년은 163개국, 2012년은 174개국,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 척결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부패척결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부패 척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고 시점도 이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개혁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 척결은 부의 배분에 있어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함을 의미

원론적으로 부패 척결은 자원과 부의 배분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소득 분배 정책과 관련 지어 생각하면 경제 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부의 배분에 대한 통제를 놓지 않고, 기업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예컨대, 그간 중국 정부의 소득 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골자였다. 농부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었고, 농촌 거주자들에게까지 기초 연금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빈부 격차는 확대되었다. 이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정부의 지원 또는 단순 정책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정부가 부에 대한 배분에 대한 통제를 놓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소위 '부패'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기득권의 반발과 성장률 둔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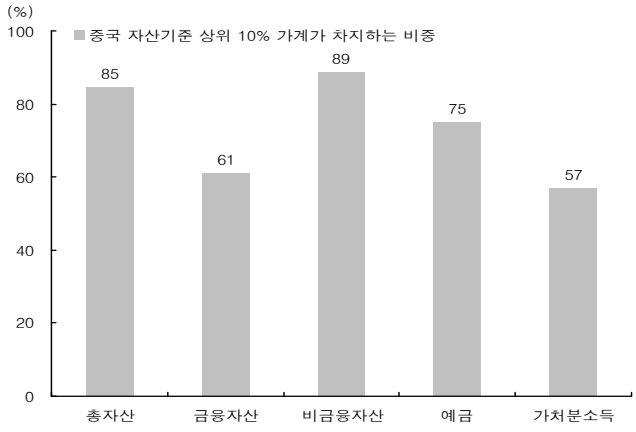
부패 척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고통이 예상

따라서, 부패 척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구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고통 또는 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성장률은 낮아지거나 성장률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득권층의 심리가 악화되거나 일부 계층의 반발도 예상

부패 척결 과정이 단기적으로 고통 또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유는 부패가 척결되는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심리가 악화되거나, 일부 계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이민자 급증이 단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총서기가 '부패 척결'을 강조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된 고급 주류 업체들과 시계 업체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참고적으로 중국에서는 주류와 시계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뇌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 소득 상위 계층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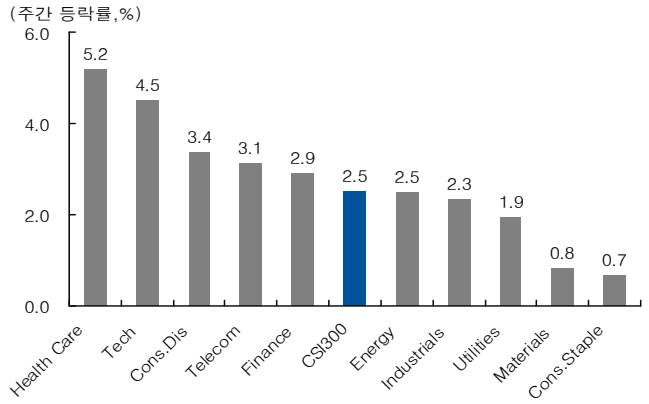
자료: 중국 가계금융 서베이(2011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 고급 주류업체들의 주가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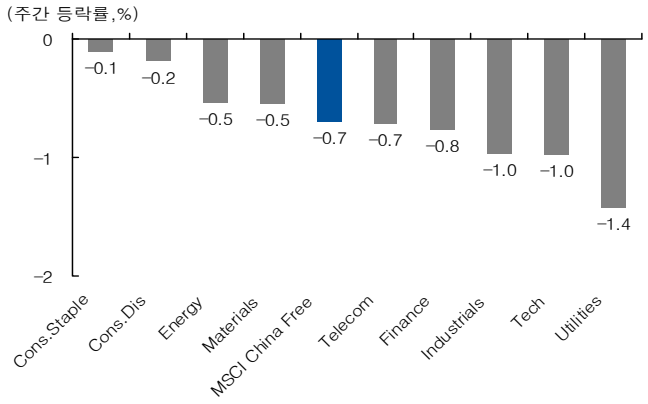
주요 섹터별 흐름: 본토는 헬스 케어, 소비재, 금융 등 섹터가 지수대비 강세

그림 5. CSI 300지수 주간 섹터별 등락률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MSCI China 주간 섹터별 등락률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주간, 월간 홍콩H 편입종목 중 상승률/하락률 상위 10대 종목 (%)

Rank	종목	티커	업종	5D	1M	Rank	종목	티커	업종	5D	1M
1	시노펙 상하이석유화공	338 HK Equity	화학	6.0	19.7	1	북경국제공항	694 HK Equity	인프라	3.7	7.6
2	광선철도	525 HK Equity	운송	3.4	17.0	2	절강호항용고속도로	576 HK Equity	인프라	3.1	1.5
3	CNOOC 유전서비스	2883 HK Equity	정유	2.6	7.1	3	중국석유화공(시노펙)	386 HK Equity	정유	1.9	6.9
4	중국 초상은행	3968 HK Equity	은행	2.5	16.4	4	상해전기	2727 HK Equity	전기	1.7	10.0
5	PICC 자산상해보험	2328 HK Equity	보험	1.7	5.7	5	다당국제전력	991 HK Equity	전력	1.7	5.8
6	중국 알루미늄	2600 HK Equity	금속	1.4	6.9	6	COSCO	1919 HK Equity	운송	1.6	6.7
7	중국 평안보험	2318 HK Equity	보험	1.4	8.9	7	China Molybdenum	3993 HK Equity	광업	1.5	6.3
8	마안산철강	323 HK Equity	철강	1.3	12.9	8	중국해운컨테이너(CSCL)	2866 HK Equity	운송	1.3	9.2
9	중국생명보험	2628 HK Equity	보험	1.2	7.7	9	자금광업	2899 HK Equity	광업	1.3	-2.6
10	중국해운개발	1138 HK Equity	운송	1.1	14.9	10	강서동업	358 HK Equity	금속	1.2	5.2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중국 원자재/금리/환율 동향 (%, P)

항목구분	상품	티커	5D%	1M%	3M%	12M	YTD%	52주 고가%	52주 저가%
	친황다오 석탄 가격	CLSPCHQI Index	0.0	-2.2	-0.5	-24.3	-24.3	-24.3	0.0
	중국 철광석 수입 가격	CIOWQIND Index	8.4	14.2	14.9	-7.2	-7.2	-9.0	37.9
	중국 Rebar Spot 가격	cdspdrav index	0.2	-0.0	-0.3	-14.4	-14.5	-16.1	7.3
상해 선물	구리 선물	cu3 comdty	0.8	1.9	-3.4	3.9	4.3	-6.6	7.8
	알루미늄 선물	AA3 comdty	0.7	-0.4	-2.5	-3.5	-3.2	-6.4	2.0
	이형봉강 선물	RBT3 Comdty	2.6	7.6	8.6	-11.1	-10.1	-11.7	15.9
	금 선물	AUA3 comdty	-0.8	-4.6	-8.1	2.8	4.6	-8.2	6.1
	연료유 선물	FO3 Comdty	0.0	2.2	1.9	-1.0	-0.7	-11.2	8.7
대련 선물	옥수수 선물	AC3 Comdty	-0.4	-0.2	3.4	8.3	7.9	-1.9	7.9
	대두 선물	AK3 Comdty	0.3	0.1	-1.1	10.9	10.8	-4.6	12.8
	폴리에틸렌	pol3 Comdty	0.3	6.8	4.9	20.5	19.0	-0.5	21.2
정주 선물	백색 원당	cb3 Comdty	0.7	4.4	6.6	-9.6	-7.5	-18.7	7.3
	소맥(강력분)	vn3 Comdty	0.4	2.4	2.3	8.7	8.1	-2.2	10.8
금리	PBOC 3개월 금리	pboc3m inde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BOC 1년물 금리	pboc1yr index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은행간 Repo 1일물	rp01 index	-0.56	-0.23	-0.41	-1.33	-2.95	-5.43	0.29
	은행간 Repo 7일물	rp07 index	0.52	1.12	0.96	-1.00	-2.38	-3.72	1.84
환율	USD/RMB Spot	usdcny curncy	0.10	0.24	-0.76	-1.34	-1.00	-2.37	0.24
	USD/RMB 12개월 NDF	ccn+12M curncy	0.36	0.13	-1.10	-0.88	-0.98	-1.82	1.28

주: 선물은 3개월 기준, 금리는 %p,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주요종목 (12월 27일 기준) (%)

Sector	종목	티커	5D%	1M%	3M%	6M%	YTD%	52주 고가%	52주 저가%
에너지	**CSI 에너지**	**SH000908 Index**	**2.5**	**14.0**	**2.8**	**8.2**	**-6.6**	**-21.1**	**17.7**
	패트로차이나	601857 CH Equity	0.2	4.2	1.6	1.2	-8.4	-15.8	5.3
	시노펙	600028 CH Equity	1.0	12.6	13.4	12.4	-5.4	-13.6	17.1
	중국선화에너지	601088 CH Equity	3.9	13.1	6.3	14.1	-3.4	-13.0	16.3
	중국석탄에너지	601898 CH Equity	1.8	13.0	8.9	13.2	-14.3	-23.6	15.9
	연주광업	600188 CH Equity	1.5	11.1	-5.9	2.0	-20.3	-32.3	15.7
소재	**CSI 소재**	**SH000909 Index**	**0.8**	**11.8**	**0.4**	**6.1**	**3.7**	**-17.3**	**15.5**
	중국알루미늄	601600 CH Equity	-1.4	8.6	1.8	-7.1	-21.0	-33.2	10.9
	바오산 철강	600019 CH Equity	0.0	4.5	6.1	11.5	0.2	-8.3	19.4
	자금광업	601899 CH Equity	0.5	2.2	-5.7	1.1	-1.0	-20.4	7.1
	안강스틸	000898 CH Equity	-0.3	11.5	10.2	5.6	-16.9	-24.9	14.5
	강서동업	600362 CH Equity	0.2	13.7	1.1	13.8	3.8	-18.0	15.9
산업재	**CSI 산업재**	**SH000910 Index**	**2.3**	**14.4**	**8.3**	**10.5**	**-5.8**	**-18.3**	**15.8**
	다친철도	601006 CH Equity	3.8	8.5	11.0	13.4	-9.2	-12.8	15.9
	중국철도그룹	601390 CH Equity	-0.3	8.2	19.8	24.8	19.8	-1.6	25.8
	중국코스코 홀딩스	601919 CH Equity	1.4	5.8	3.1	8.2	-6.8	-24.8	17.2
	중국국제항공	601111 CH Equity	2.1	27.1	15.9	20.2	-9.4	-20.5	27.4
	중국해운컨테이너(CSCL)	601866 CH Equity	0.0	9.6	11.7	9.6	-1.6	-27.4	18.9
경기소비재	**CSI 경기소비재**	**SH000911 Index**	**3.4**	**13.8**	**8.7**	**13.4**	**4.4**	**-11.3**	**15.2**
	동풍자동차	600006 CH Equity	0.7	12.9	7.2	7.2	-5.4	-26.3	12.9
	상해차	600104 CH Equity	0.7	22.5	21.9	40.9	16.7	-2.8	45.4
	쑤닝가전	002024 CH Equity	2.6	9.6	-4.3	10.5	-21.3	-41.1	14.5
	GD 미디어	000527 ch equity	0.0	0.0	0.0	0.0	-25.0	-37.5	0.2
필수소비재	**CSI 필수소비재**	**SH000912 Index**	**0.7**	**3.2**	**-9.8**	**-6.8**	**-6.0**	**-19.0**	**10.3**
	귀주모태	600519 CH Equity	-5.0	-5.5	-15.5	-5.3	7.4	-21.0	17.0
	칭타오맥주	600600 CH Equity	3.2	8.2	0.8	0.0	-2.2	-19.1	11.8
	브라이트 유업	600597 CH Equity	2.7	6.3	8.9	2.0	3.7	-10.4	15.1
의료제약	**CSI 의료제약**	**SH000913 Index**	**5.2**	**6.0**	**-1.3**	**0.8**	**7.2**	**-5.3**	**18.0**
	윈난바이야오	000538 CH Equity	3.4	4.3	5.7	10.5	24.1	-0.8	40.5
	지린아오둥 제약산업	000623 CH Equity	3.7	15.2	3.2	6.1	-23.6	-24.0	25.7
금융	**CSI 금융**	**SH000914 Index**	**2.9**	**17.9**	**14.8**	**19.1**	**16.2**	**-1.1**	**20.6**
	중국공상은행	601398 CH Equity	-0.5	4.9	8.0	5.5	-4.5	-9.2	11.3
	중국건설은행	601939 CH Equity	-0.4	7.9	13.3	12.5	-0.7	-8.5	17.8
	중국생명보험	601628 CH Equity	3.1	13.5	5.2	18.5	12.7	-0.6	23.7
	중국핑안보험	601318 CH Equity	2.3	19.3	3.1	12.5	25.5	-6.5	27.7
	CITIC증권	600030 CH Equity	1.3	17.4	3.5	20.0	25.6	-12.1	31.3
	해통증권	600837 CH Equity	0.5	13.9	-0.2	18.5	29.0	-10.1	35.0
	중국만과	000002 CH Equity	6.8	19.6	20.0	27.0	35.5	0.0	41.3
	보리부동산	600048 CH Equity	4.7	13.0	19.8	41.6	28.9	-1.5	59.3
기술	**CSI 기술**	**SH000915 Index**	**4.5**	**10.4**	**-1.9**	**-2.9**	**-5.1**	**-17.9**	**14.4**
	뉴소프트	600718 CH Equity	4.8	9.3	-3.3	-7.4	-9.1	-21.0	14.4
	칭화퉁팡	600100 CH Equity	5.1	9.8	-3.9	-5.4	-15.0	-34.8	16.3
통신	**레노보**	**992 HK Equity**	**0.8**	**3.4**	**13.9**	**14.9**	**41.1**	**-4.6**	**41.1**
	CSI 통신	SH000916 Index	3.1	10.9	-10.9	-6.9	-34.4	-35.8	12.5
	중국유나이티드통신	600050 CH Equity	1.5	6.8	-6.5	-10.6	-34.2	-35.6	9.2
	ZTE 통신	000063 CH Equity	4.6	17.4	-18.2	-5.3	-46.0	-49.7	19.5
전력	**차이나 텔레콤**	**728 HK Equity**	**0.0**	**1.9**	**-4.2**	**-3.6**	**-2.9**	**-12.6**	**30.4**
	차이나모바일	941 HK Equity	-0.6	2.9	4.7	7.3	18.5	-2.8	19.9
	CSI 전력	SH000917 Index	1.9	6.8	5.6	3.6	-1.7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크레딧 강수연 02-768-3057 sooyeon.kang@dwsec.com

Credit Weekly

주간 회사채 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면서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다. 채권시장의 강세 움직임에 따라서 크레딧 채권 역시 약세 기조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들어 이어진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추세는 금주에도 이어졌다. 전주에 이어 우량 크레딧 채권인 특수채 및 은행채 대비 여전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존 베이너 의장의 '플랜B'에 대한 표결이 취소 되면서 재정절벽 합의 도출이 연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연내 다시 한번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투자자의 관망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간 크레딧 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12월 27일 종가 기준) (%, bp)

구분		금리				전주대비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장단기 스프레드		전주대비 변동	
		1Y	2Y	3Y	5Y	1Y	2Y	3Y	5Y	5-3Y	5-1Y	5-3Y	5-1Y
특수채	한전채	2.91	2.99	3.05	3.19	2	0	1	1	14	28	1	0
	도로, 수자원	2.93	3.01	3.06	3.19	2	-0	1	1	13	26	1	0
	일반공사 AAA	2.94	3.03	3.08	3.20	1	-0	1	1	12	26	1	1
은행채	산금채	2.87	2.98	3.03	3.17	0	-1	2	1	14	30	0	2
	중금채	2.88	2.99	3.05	3.19	-0	-1	2	1	14	31	0	2
	시은채 AAA	2.89	3.00	3.07	3.22	0	-1	2	1	15	33	0	2
	시은채 AA+	3.02	3.13	3.18	3.28	1	-1	2	1	10	26	0	1
여전채	AA+	3.06	3.18	3.24	3.41	2	1	3	1	17	35	-1	0
	AA0	3.10	3.21	3.32	3.56	2	1	3	1	24	46	-1	0
	AA-	3.13	3.27	3.37	3.66	2	1	3	2	29	53	0	1
	A+	3.48	3.57	3.78	4.11	2	1	3	2	33	63	0	1
	A0	3.87	3.98	4.22	4.53	2	1	2	1	31	66	0	0
	A-	4.62	4.70	4.93	5.24	2	1	2	2	31	62	1	1
회사채	AAA	3.00	3.09	3.15	3.28	2	1	2	1	13	28	0	0
	AA+	3.05	3.16	3.21	3.34	2	1	2	1	13	29	0	0
	AA0	3.09	3.20	3.27	3.41	2	1	2	1	14	32	0	0
	AA-	3.13	3.24	3.32	3.52	2	1	2	1	20	39	0	0
	A+	3.25	3.36	3.47	3.80	3	1	2	1	33	55	0	-1
	A0	3.36	3.48	3.65	4.16	2	1	2	1	51	80	0	0
	A-	3.58	3.71	3.98	4.68	3	1	2	1	70	110	0	-1

주: 스프레드는 12/20일 종가 대비, 자료: 본드웹,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회사채 발행시장 동향

연말을 앞두고 발행금액 급감하며 2주 연속 순상환 이어짐

2012년 마지막 주 발행시장은 2개사가 2건 총 2,0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했다. 연말을 앞두고 발행금액이 급감하며 순상환 기조는 2주 연속 이어졌다. 등급별로는 AA급으로 발행이 제한되었다.

이마트와 롯데제과는 외화부채, 외화채권 차환의 목적으로 각각 1,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이마트는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신세계와 분할 시 승계된 외화부채를 차환할 계획이고, 롯데제과 역시 엔화 채권 차환금 일부를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요예측에서 AA급 두 회사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마트는 5개 기관, 1,500억원이 참여해 1.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자기등급대비 스프레드는 17bp 축소 발행되었다. 반면, 롯데제과는 1개 기관이 700억원 참여하며 목표 수량에 미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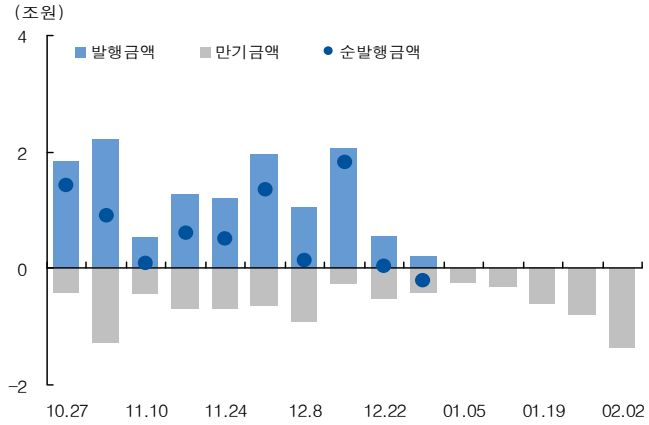
표 2. 주간 회사채 발행 내역

(억원, 년, %)

발행일	회사명	신용등급	금액	만기	발행금리	발행목적
12-12-24	이마트	AA+	1,000	3	3.03	차환 - 1,000, 신세계와 분할시 승계된 외화부채
12-12-27	롯데제과	AA+	1,000	3	3.12	차환 - 1,000, 외화채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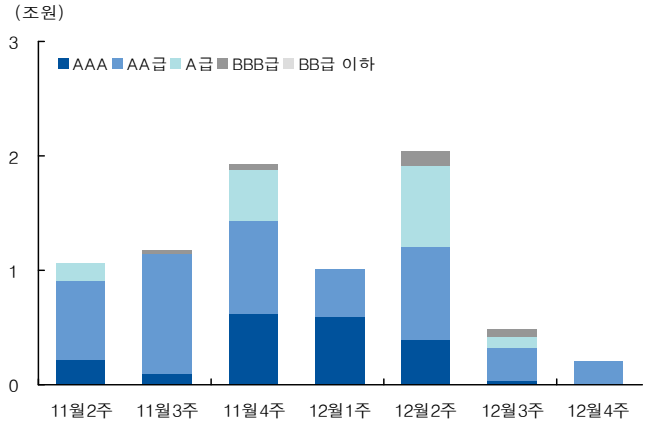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전자공시시스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발행현황: 순상환 기조 2주 연속 이어짐



자료: 본드웹,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발행등급: AA급 발행으로 제한됨



자료: 본드웹,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회사채 유통시장 동향 및 신용등급 변동내역

높아진 재무부담으로 STX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최근 해운업의 업황 부진으로 인하여 STX 그룹 계열사들의 등급이 일괄 하향 조정 되었다. 지주회사인 STX는 높아진 그룹 전반의 재무부담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되었으며, 조선업 시황 침체의 장기화, 사업위험 확대, 신규수주 부진으로 인한 실적 및 현금흐름 저하 등의 사유로 STX팬오션과 STX조선해양, STX엔진의 신용등급 역시 하향 조정 되었다.

표 3. 주간 신용등급(Outlook) 변동 현황

등급/전망 변경	기업명	평가일	현재등급	직전등급	신용평가사	내용
등급/전망 하향	STX	12-12-21	BBB+(S)	A-(N)	KIS, KR	STX계열의 영업 및 재무 변동성, 계열 관련 자금소요에 따른 재무부담
	STX팬오션	12-12-21	BBB+(S)	A-(S)/A-(N)	KIS, KR	선대투자에 따른 다소 과중한 수준의 차입부담
	STX조선해양	12-12-21	BBB+(S)	A-(N)	KIS, KR	시황침체, 신규수주 부진 등으로 실적 및 현금흐름 저하
	STX엔진	12-12-21	BBB+(S)	A-(N)	KIS	글로벌 조선 경기의 침체 장기화, 운전자금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
	한진	12-12-21	A-(S)	A-(P)	KIS	양호한 자산가치 vs. 물류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확대된 차입금 부담
	한진중공업	12-12-21	A-(S)	A0(N)	NICE, KR	조선부문 수주잔량 감소에 따른 조선부문 사업위험 확대
	대성산업	12-12-20	BBB+(S)/	A-(S)	NICE, KR	건설 및 소매유통부문의 열위한 시장지위, 건설부문의 PF우발채무 부담
	대성산업가스	12-12-20	A-(S)	A0(S)	NICE	우수한 수익성과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부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12-24	B-(N)	B(N)	KIS	소비자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비 부담 지속으로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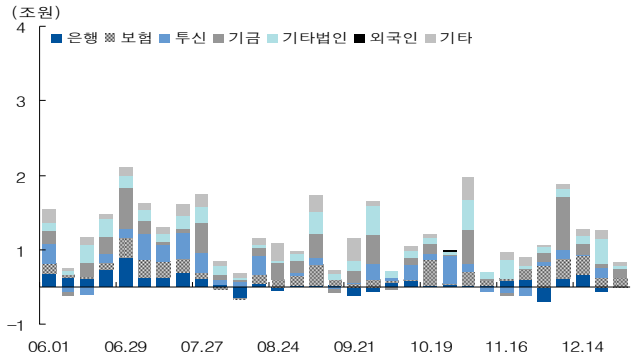
주: KR(한국기업평가), NICE(한국신용정보평가), KIS(한국신용평가), 자료: 각 신평사, 본드웹,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4. 민평 대비 상, 하위 주요 회사채 거래 동향 (억원, %, bp)

거래종목	신용등급	거래일	거래금액	민평	민평대비	만기일
상위 5선						
대한전선152	BB+	2012-12-26	19	8.36	-60	2015-03-21
대한전선152	BB+	2012-12-27	12	8.31	-44	2015-03-21
서울신문6	BBB+	2012-12-26	18	5.38	-18	2017-12-12
두산중공업43-3	A+	2012-12-26	20	4.40	-16	2019-11-27
두산건설72-2	BBB+	2012-12-24	10	7.48	-15	2014-03-21
하위 5선						
한신공영6	BBB+	2012-12-27	15	5.48	597	2013-01-27
STX조선해양28	BBB+	2012-12-26	16	10.71	391	2015-09-06
STX조선해양25	BBB+	2012-12-24	12	7.33	302	2015-04-09
STX조선해양25	BBB+	2012-12-26	13	7.34	224	2015-04-09
아시아나항공66	BBB+	2012-12-27	10	3.53	87	2014-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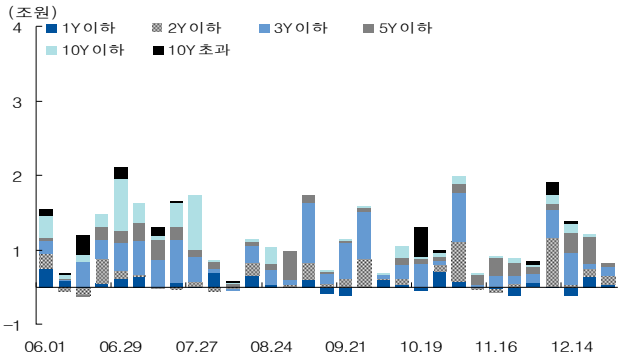
자료: 본드웹,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투자자별 회사채 순매수 추이



주: 이번 주 - 12/24~12/26, 자료: 연합인포맥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만기별 회사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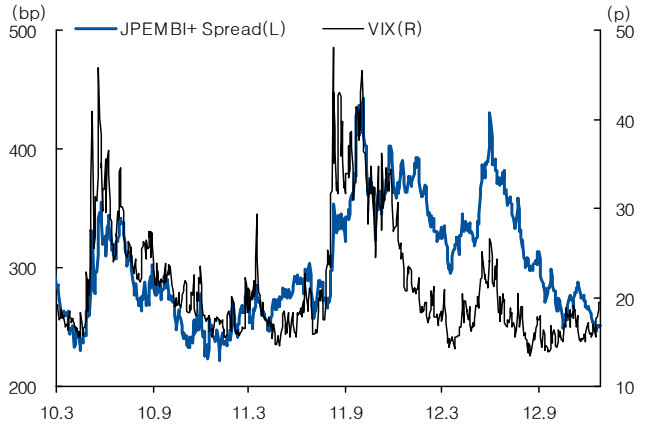
주: 이번 주 - 12/24~12/26, 자료: 연합인포맥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신용 지표 주간 동향

그림 5. 원/달러 환율 1,070원 대 횡보세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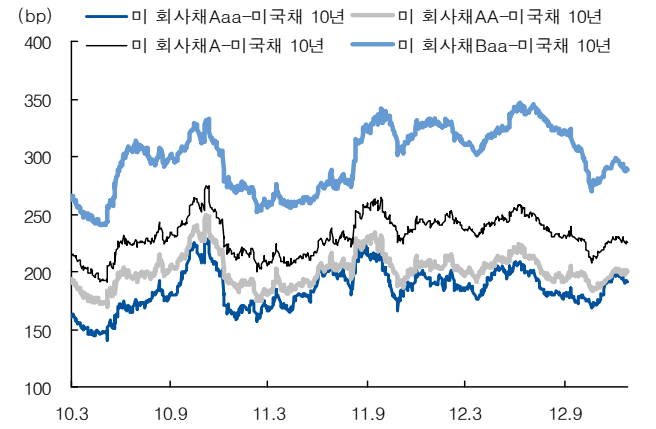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변동성 지표 상승세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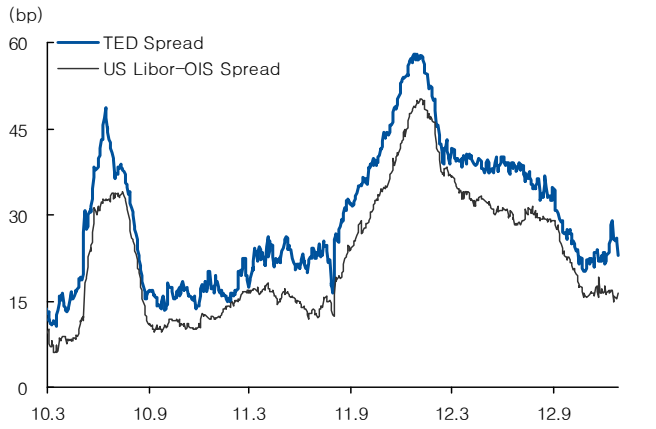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미국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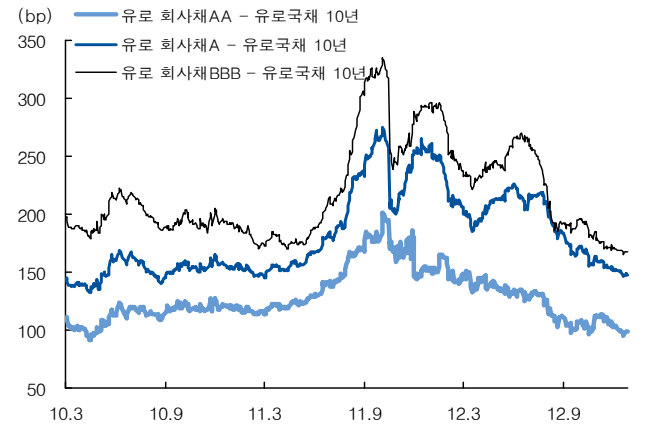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美 TED 스프레드 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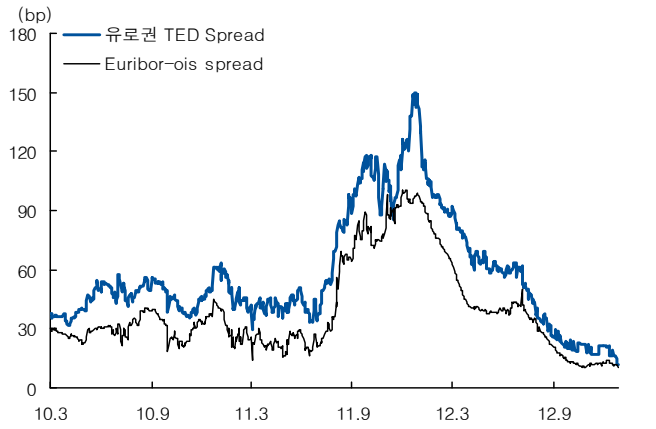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유로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유로권 TED 스프레드 축소세 지속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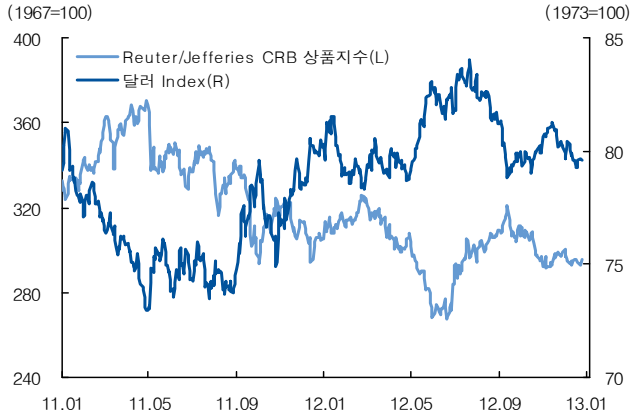
AI/파생 이지연 02-768-3073 sarah.lee@dwsec.com
AI/파생 손재현 02-768-3011 jaehyun.son@dwsec.com

홀로 상승한 WTI 유가

미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협상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출범했다. 귀금속, 원유 시장은 아베 총리의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고 있다. 주택과 소비 지출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호조를 보이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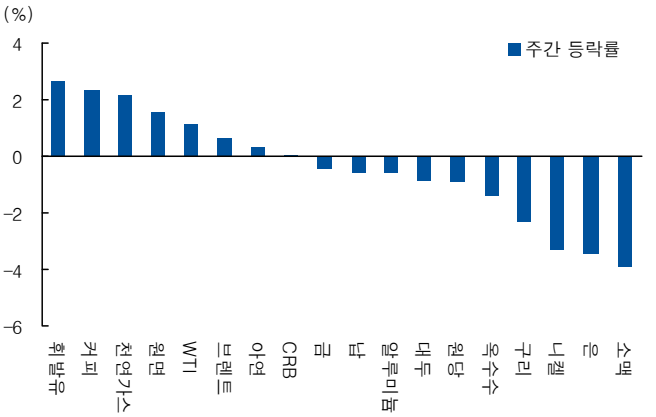
WTI유가는 미국 내 수요 증가, 경기 개선, 중동 발 불안감을 바탕으로 주간 단위로 상승했다. 반면, 이 외의 주요 상품 가격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재고량 증가세 지속에 구리 가격이 하락했고, 미 수요 부진이 확인되면서 옥수수와 소맥도 낙 폭을 키웠다. 금 가격은 1,650달러를 하향 돌파한 이후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양상이다.

그림 1. 완만한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상품 시장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에너지를 제외한 주요 상품 가격은 주간 단위로 하락



주: 활황물 기준(비철금속과 상품 지수 제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주요 상품지표 동향 (단위: %)

상품명	단위	종가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초대비
Reuter/Jefferies CRB 상품지수	1967=100	295.73	0.0	-0.7	-2.6	8.4	-3.4	-5.6
WTI - 뉴욕 선물 활황물	US$ / bbl	90.98	1.1	3.0	-0.2	11.1	-6.7	-9.8
휘발유 - 뉴욕 선물 활황물	US¢ / gallon	281.58	2.7	4.1	4.8	25.4	13.1	9.4
금 - 뉴욕 선물 활황물	US$ / troy oz	1,660.70	-0.4	-5.2	-5.4	5.0	2.5	3.0
은 - 뉴욕 선물 활황물	US$ / troy oz	30.04	-3.5	-12.3	-11.7	10.3	2.7	1.0
구리 - 런던 3개월물	US$ / ton	7,801.50	-2.3	0.1	-4.1	6.1	2.4	1.6
알루미늄 - 런던 3개월물	US$ / ton	2,092.00	-0.6	5.0	0.8	13.0	3.6	2.8
니켈 - 런던 3개월물	US$ / ton	17,100.00	-3.3	2.2	-5.3	4.8	-8.8	-7.2
아연 - 런던 3개월물	US$ / ton	2,091.00	0.3	5.1	-0.2	16.8	12.3	13.0
소맥 - 시카고 선물 활황물	US¢ / bu	774.50	-3.9	-10.3	-12.1	-0.9	9.5	4.7
대두 - 시카고 선물 활황물	US¢ / bu	1,418.50	-0.9	0.4	-7.4	3.5	18.4	15.5
옥수수 - 시카고 선물 활황물	US¢ / bu	693.25	-1.4	-7.7	-4.8	9.4	19.3	15.2
원당 - 뉴욕 선물 활황물	US¢ / lb	19.05	-0.9	-0.5	-6.5	-9.0	-18.8	-21.2

주: 12월 26일 종가 기준. 1bbl(배럴) = 158.9리터, 1gallon(갤런) = 3.79리터, 1bbl = 42 gallon, 1 troy oz = 31.1035g, 1bu(부셸) = 27.216kg, 1lb(파운드) = 0.45kg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단위로 유일하게 상승한 WTI 유가

유가는 주요 상품 가격 중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상승했다. WTI유가는 1.1% 올랐고, 브렌트유는 0.64% 상승했다. 미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더 많았던 한 주였다.

미 3분기 GDP 큰 폭으로 개선되며 유가 상승에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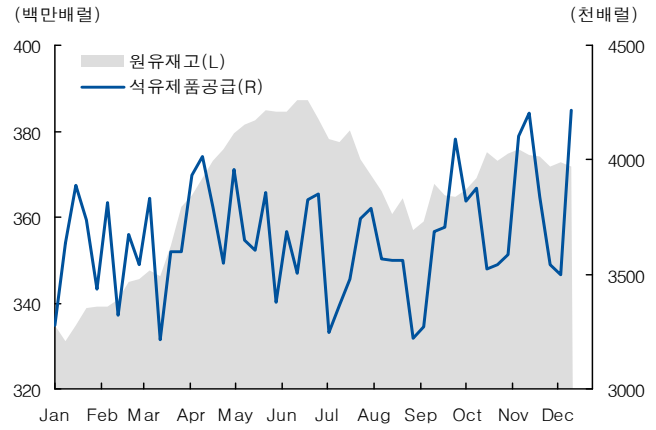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수정치인 2.7%에서 한 차례 더 상향 조정된 3.1%로 최종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주택 지표와 개인 소비 등이 호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확대**되었다. 이는 곧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WTI유가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 출범으로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유가에 긍정적이다. 유로/달러 환율이 1.32달러를 넘어서는 등 달러화 가치의 하락 추세도 유가의 상승에 일조했다.

석유 제품 소비 급등에 원유 재고 하락

미 에너지 정보청(EIA)에 따르면 주간 원유 재고량이 직전 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재고량 감소는 석유 제품 수요 확대 및 이로 인한 정제 업체들의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난방유와 연료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 수요는 한 주 만에 20% 급등하였다. 특히, 계절적으로 난방유 소비가 증가하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석유 제품 재고량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난방유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석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정제 업체들의 가동률은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석유 제품 생산량은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유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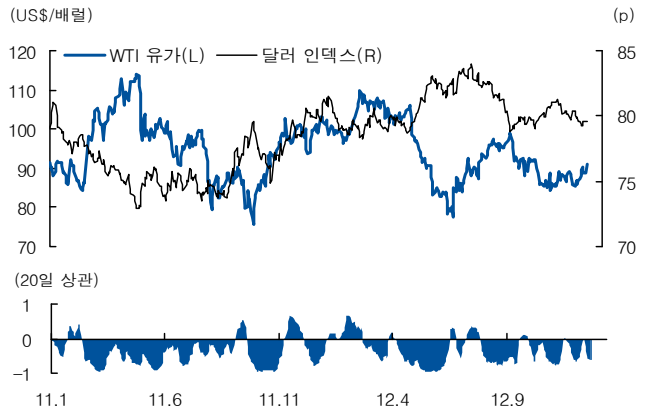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조한 소규모 테러단체의 조직원이 UAE에서 체포되는 등 **중동 발 지정학적 불안감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석유 장관은 이라크의 12월 일일 원유 생산량이 320만 배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1월의 원유 생산량은 일 평균 317만 배럴 수준이다. 2013년에는 370만 배럴, 2014년에는 400만 배럴까지 증산할 계획이라며 석유 산업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림 3. 석유 제품 수요 증가는 곧 원유 재고 감소로 이어져



자료: EIA,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달러와 WTI 간 역의 상관 관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옥수수와 소맥 가격, 약세 흐름 지속

곡물 가격은 주간 단위로 일제히 하락했다. 대두 가격은 보합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소맥과 옥수수 가격은 한 달 만에 10.3%, 7.7% 급락하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미 대두 수요, 3월까지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

미국산 대두의 수출량과 수출 검역 물량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두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한 때, 중국이 구매키로 한 미국산 대두에 대한 구매 계약이 일부 철회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다. 1분기 이후 수확되는 브라질의 대두 공급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미의 파종이 지연되면서 수확도 늦어질 것이라는 점과 중국의 높은 대두 수입량을 고려했을 때 **3월까지는 미국산 대두에 대한 높은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수출 및 연료용 수요가 동시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옥수수 가격 하락

반면, **미 옥수수에 대한 수출 수요 및 연료 생산용 수요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옥수수 가격 하락세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수출량과 수출용 검역량은 예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주간 에탄올 생산량은 전주 대비 감소하는 동시에 재고량은 증가했다.

브라질에는 가뭄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12월 첫 3주 간 아르헨티나에는 작년의 3~4배 가량의 비가 내렸다. 올 여름 세계 작황 전반이 부진했던 만큼, **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수확되는 곡물의 작황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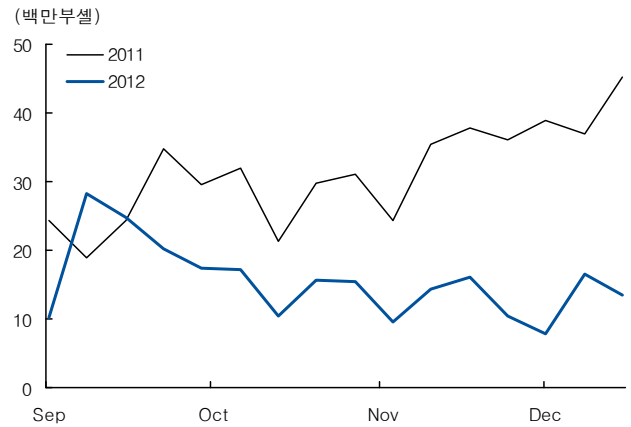
구리 재고 증가 추세 지속

구리 재고 급증세 지속에 구리 가격은 8,000달러 하회

런던과 상해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의 구리 재고가 급증세를 이어가며 구리 가격은 주간 단위로 하락했다.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재고량은 올해 2월 초 이후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다. 내년 중국의 구리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의 소비 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였지만 구리 가격의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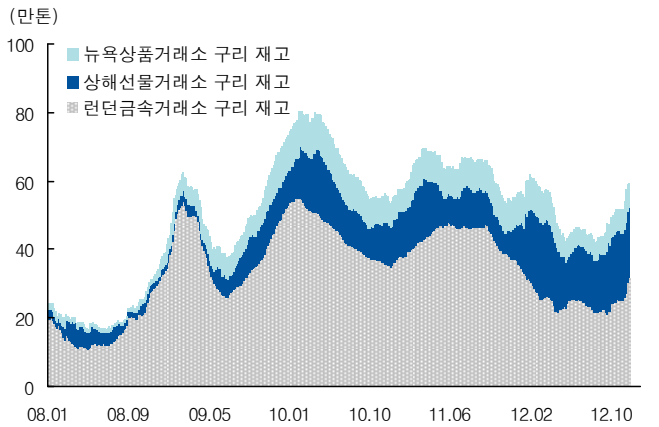
주요 거래소들이 성탄절과 박싱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세계 구리 생산량의 6%를 생산하는 BHP빌리턴의 에스콘디다(Escondida) 구리 광산 노동자와 사측 간에 임금 협상이 결렬되며 구리 가격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해진 협상 기간이 지나면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고, 이는 구리 공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5. 예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주간 옥수수 수출 검역량



자료: EIA,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구리 재고의 급격한 증가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금 가격의 단기 낙 폭 확대되며 200일 선 하회

금 가격, 1,650달러 근방에서 숨 고르는 중

한 달 사이 금 가격은 5.2%, 은 가격은 12.3% 하락했다. 금 가격이 1,600달러 중반 수준까지 하락했고, 3월 이후 200일선을 처음으로 하회했다.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가파른 하락세는 투자 심리 악화에 일조했다. 1,650달러 근방에서 하락세는 주춤해졌지만, 아직 반등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의 금 가격은 미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하며 등락했다. 현재로서는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공화당이 제안한 '플랜B'가 하원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협상 타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절벽 협상 진척도가 중요한 이슈

일단, 성탄절 연휴를 끝내고 미 재정 절벽 협상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진전 여부가 금 가격에 단기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인 협상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부분적인 협상 시도가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제한되는 가운데 협상에도 별 다른 진전이 없다면, 관망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12월 FOMC에서 QE4를 발표하면서 양적완화 지속 조건으로 실업률 6.5%와 인플레이션 2.5%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미 주요 경제 지표가 대체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준의 초저금리 제도의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금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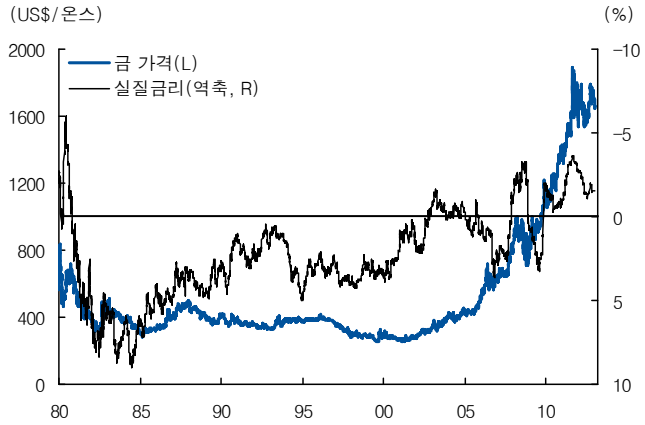
1월 일본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 확인

반면, 12월 26일 공식 발족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이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금 가격의 하단을 지지**했다. 아베 총리는 목표 물가상승률을 2%로 설정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일본은행에 대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21에 있을 일본은행의 정례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금 가격, 200일선 하향 돌파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선진국 통화 완화 기조는 금 가격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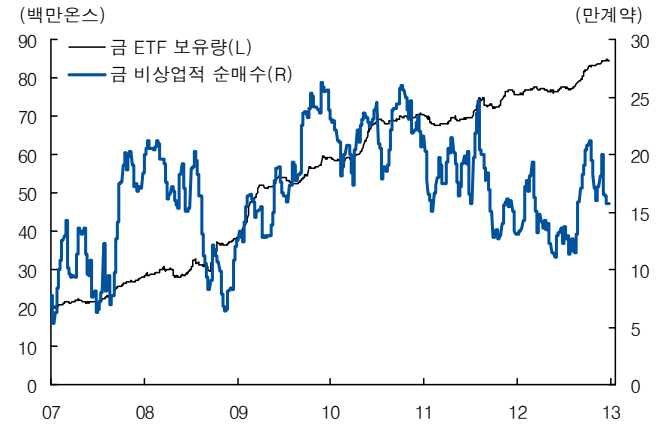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물 시장의 투기적 순매수는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ETF의 금 보유량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3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 규모를 확대했다. 현 보유량은 8월 보유량 대비 2배에 달한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자산 형태 다각화의 일환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부문의 금 매수세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금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 가격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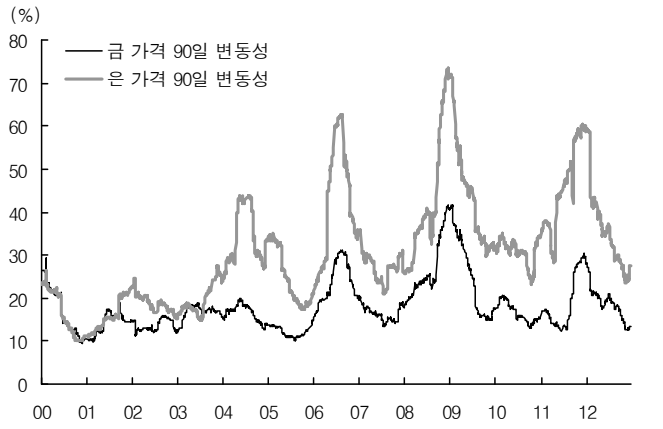
상품 시장에서 대표적 귀금속 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추이를 보여왔다. **은 가격은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어 높은 변동성**을 가진다. 최근 귀금속 가격의 하락 장에서도 금 보다 은 가격의 낙 폭이 컸다. 다만, 금과 은의 수요는 유사하지 않다. 금의 경우, 보석용 수요와 투자 수요의 합이 90%에 달한다. 반면, 은의 수요는 절반 가량이 산업용 수요이다. 미국의 지표 개선세와 중국 신지도부의 경기 안정 의지로 미루어볼 때, 산업 수요 측면에서 가격 상승 지지가 기대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귀금속 가격 상승 국면에서 은의 상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림 9. 금에 대한 투자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지 않는 듯



자료: Bloomberg, CFT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저가 메리트로 인해 은 가격의 변동성은 금 가격보다 커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오영기 02-768-2601 youngki.oh@dwsec.com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453.7 / 5일 4074.6)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672.0 / 5일 13769.4)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서비스업	270.4	-882.8	운수장비	-659.6	836.4	통신업	111.4	-125.3	전기전자	-614.4	2,077.9
철강금속	210.7	418.9	통신업	-170.4	1,314.2	전기가스	27.1	569.7	운수장비	-438.7	1,458.3
금융업	186.4	1,324.9	은행	-28.0	-34.3	음식료	13.4	1,137.3	서비스업	-168.3	2,265.9
보험업	104.0	290.6	의료정밀	-3.2	-2.5	건설업	2.6	465.2	화학	-143.0	2,768.9
음식료	97.0	855.8	종이목재	-1.2	-10.6	증권	2.2	271.2	철강금속	-133.1	69.4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레버리지	209.0	678.8	기아차	-646.0	-350.3	SK텔레콤	84.9	-122.9	삼성전자	-462.2	175.8
두산	202.3	-800.0	현대위아	-170.3	28.5	LG전자	72.5	467.1	현대차	-222.2	-353.6
KODEX 200	164.1	-507.6	LG화학	-125.0	8.0	LG화학	60.4	1,198.7	KODEX레버리지	-134.3	-20.9
삼성전자	122.7	524.6	SK텔레콤	-100.1	416.5	신한지주	39.2	-8.6	삼성전자우	-102.2	-94.8
POSCO	120.3	519.5	KT	-80.3	759.2	LG	36.8	306.9	POSCO	-98.9	-303.8
고려아연	95.7	-313.1	현대모비스	-79.9	156.2	오리온	27.5	924.6	LG디스플레이	-96.2	8.4
LG생활건강	89.7	91.7	삼성SDI	-78.6	-55.8	현대하이스코	22.9	87.9	LG생활건강	-84.4	78.9
현대차	80.6	786.9	LG	-76.3	-147.3	현대건설	21.5	348.1	삼성화재	-81.6	-22.3
삼성화재	65.9	167.8	KODEX 인버스	-75.1	-153.6	CJ	21.2	135.8	대우조선해양	-58.8	142.3
삼성전자우	58.5	89.2	엔씨소프트	-72.9	-277.7	KT	20.6	6.5	현대차2우B	-55.8	10.3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503.8 / 5일 -142.2)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223.2 / 5일 247.6)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디지털컨텐츠	161.5	-99.8	인터넷	-5.2	2.8	제약	52.7	266.8	컴퓨터서비스	-12.4	-17.6
IT부품	108.5	-196.5	비금속	-0.6	14.0	IT부품	47.6	32.3	통신서비스	-3.7	9.1
소프트웨어	49.9	97.1	건설	-0.3	2.6	반도체	33.7	-24.2	출판.매체복제	-2.7	1.6
오락.문화	48.1	-22.9	금융	-0.1	7.1	화학	19.0	10.2	금융	-2.6	-7.8
반도체	31.8	-159.8	종이.목재	0.0	1.1	유통	14.7	24.3	금속	-2.4	-63.5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게임빌	94.6	-159.4	CS엘쏠라	-21.0	-	셀트리온	32.8	204.1	CS엘쏠라	-21.7	-
컴투스	49.2	21.1	아바텍	-9.3	-51.4	파트론	14.7	-4.4	인터플렉스	-18.5	-45.8
한글과컴퓨터	40.5	131.7	네오위즈게임즈	-8.7	-2.1	신화인터텍	13.7	6.9	한글과컴퓨터	-7.8	11.3
에스엠	39.8	10.7	제이브이엠	-8.2	2.8	플렉스컴	9.5	21.5	슈프리마	-7.2	3.3
위메이드	31.3	53.0	잉크테크	-6.9	-12.4	게임빌	9.5	-9.6	크로바하이텍	-6.2	10.9
플렉스컴	26.6	-6.0	인터플렉스	-6.9	-84.7	메가스터디	9.3	29.7	메디톡스	-5.6	1.1
멜파스	21.8	-18.5	디지탈옵틱	-6.4	-20.1	씨티씨바이오	8.3	-5.7	루멘스	-4.4	7.6
서울반도체	15.7	-42.9	셀트리온	-5.9	82.7	EG	8.2	-11.7	다날	-3.8	-3.2
씨젠	14.0	-5.7	디오텍	-5.3	-1.4	덕산하이메탈	7.9	8.9	SK브로드밴드	-3.8	9.1
포스코 ICT	13.3	20.4	다음	-5.2	5.4	에스맥	7.2	4.2	매일유업	-3.5	-28.9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두산	18,732.3	기아차	-25,660.4	삼성전자	16,995.0	기아차	-17,953.2
POSCO	7,184.6	LG화학	-11,139.5	SK하이닉스	6,971.0	현대하이스코	-4,703.1
CJ제일제당	5,712.8	삼성전자	-11,040.9	현대차	6,737.6	CJ제일제당	-4,638.5
한국전력	5,595.3	현대모비스	-10,135.0	두산	5,800.7	삼성엔지니어링	-4,213.8
LG생활건강	5,125.2	KB금융	-8,459.1	SK	5,503.5	KT	-3,682.7
KINDEX200	4,098.6	삼성SDI	-7,742.2	고려아연	5,071.3	SK C&C	-3,465.7
우리금융	3,592.2	TIGER 200	-7,062.0	현대제철	4,891.8	기업은행	-2,998.7
KINDEX 레버리지	3,169.4	LG	-6,596.5	NHN	4,829.2	OCI	-2,841.5
TIGER 레버리지	3,092.5	SK텔레콤	-6,552.3	삼성물산	4,685.2	삼성중공업	-2,650.9
SK C&C	2,749.6	현대위아	-6,335.3	SK텔레콤	4,670.6	대우인터내셔널	-2,639.6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POSCO	1,522.5	SK텔레콤	-7,933.5	두산	8,180.0	TIGER 레버리지	-12,532.7
하나금융지주	1,369.4	LG전자	-4,369.3	TIGER 200	6,482.0	기아차	-11,745.3
신한지주	1,308.3	KT	-3,009.3	고려아연	6,116.3	한국전력	-7,073.2
두산인프라코어	937.6	KODEX 200	-2,950.8	KODEX 200	5,957.3	KOSEF 200	-5,156.2
현대중공업	820.7	현대제철	-1,711.8	삼성전자	4,777.7	현대위아	-3,972.1
LG상사	754.4	삼성전자우	-1,678.3	KStar 200	3,265.5	LG	-3,841.1
호남석유	697.4	기아차	-1,267.8	현대차	3,060.8	현대제철	-3,010.1
KB금융	638.7	CJ CGV	-804.0	OCI	1,650.2	LG화학	-2,737.1
롯데쇼핑	615.8	SK하이닉스	-757.3	호남석유	1,154.3	SK하이닉스	-2,444.6
이수화학	572.5	LG화학	-666.1	세아베스틸	1,008.5	KT	-1,771.2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한국가스공사	985.3	5,810.8	기아차	4,411.1	64,601.4
대림산업	95.8	4,055.5	삼성SDI	239.1	7,859.5
현대중공업	1,884.2	3,456.5	엔씨소프트	5,439.2	7,286.5
대우증권	396.1	2,760.7	삼성전기	777.3	3,106.5
LG상사	267.6	2,163.3	호텔신라	683.5	3,067.5
현대그린푸드	28.2	2,082.6	삼성중공업	4,018.3	2,416.9
한국전력	1,930.1	2,004.8	제일모직	1,080.9	1,653.5
금호석유	1,572.3	1,814.9	동국제강	1,481.9	1,079.9
오리온	2,746.1	1,162.7	KB금융	3,141.5	848.3
하나금융지주	1,550.5	1,062.5	KT&G	3,925.0	361.4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멜파스	1,829.9	인터플렉스	-1,246.9	한글과컴퓨터	2,296.6	에스엠	-3,469.3
컴투스	1,483.1	파트론	-886.4	인터플렉스	1,444.0	셀트리온	-453.1
에스엠	1,146.0	게임빌	-851.0	게임빌	1,275.4	파라다이스	-381.0
위메이드	1,074.7	네오위즈게임즈	-557.2	SBS콘텐츠허브	1,047.0	신화인터텍	-232.7
켐트로닉스	758.3	CS엘쏠라	-552.7	컴투스	901.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28.1
코오롱생명과학	732.6	인프라웨어	-487.4	포스코 ICT	860.1	비에이치	-227.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90.5	제이브이엠	-424.3	멜파스	710.3	와이엠씨	-216.4
한글과컴퓨터	628.0	네패스	-414.8	성광벤드	699.4	태웅	-197.7
메디톡스	595.4	GS홈쇼핑	-333.4	플렉스컴	684.6	조이맥스	-177.3
덕산하이메탈	576.6	이라이콤	-308.8	이노칩	676.3	농우바이오	-148.3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에스엠	555.9	농우바이오	-254.2	게임빌	6,877.0	인터플렉스	-705.9
바이오랜드	462.6	한글과컴퓨터	-182.6	에스엠	3,162.7	잉크테크	-692.3
이엘케이	395.4	안랩	-83.6	위메이드	1,304.4	KG이니시스	-465.4
플렉스컴	317.0	게임빌	-81.9	플렉스컴	834.5	사파이어테크놀로지	-393.1
포스코엠텍	217.9	대호피앤씨	-64.2	네이블	694.7	메디포스트	-347.2
디엔에프	158.1	신화인터텍	-49.8	한글과컴퓨터	622.4	네오위즈게임즈	-326.7
이트레이드증권	121.4	엠씨넥스	-48.3	솔브레인	504.6	파트론	-313.1
인터플렉스	112.9	톱텍	-32.6	비에이치	497.9	포스코엠텍	-244.9
하이록코리아	107.6	파라다이스	-31.5	파라다이스	486.6	SK브로드밴드	-232.6
멜파스	103.4	케이엠더블유	-29.7	로엔	393.0	매일유업	-230.1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게임빌	946.7	9,464.9	CS엘쏠라	2,168.5	2,104.0
위메이드	302.1	3,131.3	네오위즈게임즈	32.4	872.4
플렉스컴	951.8	2,663.6	잉크테크	82.2	692.3
멜파스	259.0	2,183.3	인터플렉스	1,850.3	690.4
서울반도체	476.1	1,570.4	에스텍파마	24.9	292.2
씨젠	341.5	1,399.9	태웅	319.4	207.9
세코닉스	255.6	1,201.5	청담러닝	11.6	174.2
KH바텍	407.4	1,178.0	정상제이엘에스	69.3	154.1
덕산하이메탈	785.9	962.2	네오위즈인터넷	54.2	126.6
평화정공	460.7	725.9	안랩	281.6	83.6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DB DAEWOO DAILY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2012. 12. 28

김영성 02-768-4120 youngsung.kim@dwsec.com

당일 선물 시황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정보

	KOSPI200	1303	1306	1309	KSPH3H6S
기준가격	261.97	263.60	264.80	267.00	1.55
시가	261.64	263.30	265.05	265.05	1.55
고가	262.83	264.80	266.15	267.10	1.60
저가	260.45	262.00	263.85	265.05	1.55
종가	262.68	264.35	265.85	267.10	1.60
전일대비	0.71	0.75	1.05	0.10	0.05
이론가격	-	264.30	265.97	267.73	1.67
총약정수량 *	60,824	139,230	49	4	5
총약정금액 **	2,359,538	18,362,097	6,508	532	1,324
미결제약정	-	111673 (626)	1326 (-5)	17 (1)	-
배당지수 ***	2.89% (CD금리)	0.00	0.23	0.35	-
반응배수		1.18	0.97	0.86	
장중평균베이시스		2.460			
전일대비		1.313			

주: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H3H6S : 3월물과 6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시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익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59,069	42,092	31,170	604	2,228	354	2,597	1,169
	매도	58,909	42,354	31,324	458	1,688	719	2,405	1,423
	비중	42.4%	30.3%	22.4%	0.4%	1.4%	0.4%	1.8%	0.9%
순매수누적	전일	160	-262	-154	146	540	-365	192	-254
	누적	3,694	4,046	-2,594	-677	-4,202	78	147	-491
매매편향강도		0.14%	-0.31%	-0.25%	13.75%	13.79%	-34.02%	3.84%	-9.80%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290	1.10%	299	7,887	0.00%
KODEX200	135	0.51%	3,816	100,884	18.64%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종가/100	265.95	264.80	262.77	264.35	263.06
eff.delta	4.08	1.90	0.96	1.06	0.93
diff/basis	1.24%	0.81%	0.03%	1.67	0.38

	KOSEF	KODEX200
NAV	26,590	26,599
(ETF-NAV)%	0.02%	-0.45%
T/E	1.03%	0.96%
설정주수	3600	3200
환매주수	50	500
상장주수	13250	1744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시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시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내재변동성	0.144	콜평균	0.136	풋평균	0.154	역사적(5일)	8.8	역사적(20일)	10

월물 행사가격		1301					1302		
		267.5	265.0	262.5	260.0	257.5	265.0	262.5	260.0
Call	가격	1.22	2.11	3.30	4.85	6.75	5.10	6.40	7.90
	전일대비	0.12	0.20	0.20	0.20	0.50	0.35	0.35	0.30
	내재변동성	13.70	14.10	14.40	14.80	15.70	14.70	14.90	15.20
	거래량	188,262	188,434	34,471	8,947	2,914	720	271	103
	미결제	23,853	29,588	13,263	11,234	4,030	1,053	515	714
Put	가격	5.65	4.05	2.74	1.82	1.20	6.45	5.20	4.20
	전일대비	-0.55	-0.45	-0.46	-0.39	-0.20	-0.40	-0.40	-0.35
	내재변동성	13.30	13.80	14.00	14.60	15.40	14.90	15.00	15.20
	거래량	3,661	12,056	38,614	130,608	116,451	129	347	287
	미결제	3,095	7,890	11,355	17,824	18,012	306	445	877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444,337	289,892	281,495	649	989	175	4,042	21
	매도	442,129	293,948	279,884	649	817	13	4,118	51
	비중	43.4%	28.6%	27.5%	0.1%	0.1%	0.0%	0.4%	0.0%
순매수 누적	전일	2,208	-4,056	1,611	0	172	162	-76	-30
	누적	1,288	17,273	-13,770	-305	-1,093	-198	-3,104	-106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433,714	233,097	138,316	1,079	1,156	4	16	3,585
	매도	431,789	231,668	141,812	1,079	1,144	6	46	3,423
	비중	53.4%	28.7%	17.3%	0.1%	0.1%	0.0%	0.0%	0.4%
순매수 누적	전일	1,925	1,429	-3,496	0	12	-2	-30	162
	누적	45,210	-25,056	-17,381	200	406	203	-169	-3,413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5,736,020	11,758,028	11,801,389	5,733,767	159	-	-	182
	기타	-	-	-	-	-	-	-	-
	합계	5,736,020	11,758,028	11,801,389	5,733,767	159	0	0	182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301	0.08	19,027	0.63	317	0.09	18,715	0.62
	비차익	18,673	5.00	562,759	18.58	15,395	4.12	600,906	19.84
	합계	18,975	5.08	581,786	19.21	15,713	4.21	619,622	20.46

베이시스 수준	1.925	1.825	1.725	1.625	1.525	1.425	1.325	1.225
차익성 순매수	-247	-1150	16	-56	6	18	0	0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타임.

리서치센터 02-768-4153 aram.noh@dwsec.com

유가증권시장			12/27 (목)	12/26 (수)	12/24 (월)	12/21 (금)	12/20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87.35	1,982.25	1,981.82	1,980.42	1,999.50
	이동평균	5일	1,986.27	1,987.42	1,987.58	1,990.22	1,994.69
		20일	1,965.63	1,962.52	1,958.84	1,955.31	1,951.27
		60일	1,937.03	1,937.18	1,937.28	1,937.26	1,937.44
	이격도	20일	101.10	101.01	101.17	101.28	102.47
		60일	102.60	102.33	102.30	102.23	103.20
	거래량		376,071	457,994	348,173	553,671	421,933
	거래대금		30,658.3	36,187.1	32,456.2	53,621.8	55,370.2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05	1.28	0.98	1.55	1.18
	거래대금 회전율		0.27	0.32	0.28	0.47	0.48
	심리지표		70	70	70	60	70
	ADR		100.86	96.16	96.30	97.35	98.11
	이동평균	20일	90.95	90.60	89.90	89.15	88.26
	VR		254.02	199.72	166.66	175.62	195.86

코스닥시장			12/27 (목)	12/26 (수)	12/24 (월)	12/21 (금)	12/20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492.08	482.76	483.76	478.06	479.21
	이동평균	5일	483.17	481.40	481.94	483.52	485.94
		20일	489.44	489.52	490.19	490.95	491.90
		60일	506.46	506.98	507.58	508.19	508.94
	이격도	20일	100.54	98.62	98.69	97.37	97.42
		60일	97.16	95.22	95.31	94.07	94.16
	거래량		355,609	327,756	297,319	333,417	342,515
	거래대금		16,678.7	14,844.6	14,843.4	15,179.0	15,106.2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73	1.56	1.42	1.58	1.63
	거래대금 회전율		1.55	1.39	1.39	1.44	1.43
	심리지표		50	50	50	50	60
	ADR		88.63	87.13	83.63	86.13	89.55
	이동평균	20일	84.86	84.95	85.48	85.29	84.75
	VR		83.89	84.32	125.82	97.36	92.50

자금지표	12/27 (목)	12/26 (수)	12/24 (월)	12/21 (금)	12/20 (목)
국고채 수익률(3년)	2.85	2.88	2.87	2.85	2.88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31	3.33	3.32	3.30	3.32
원/달러 환율	1,072.20	1,073.20	1,074.20	1,074.30	1,074.70
CALL금리	2.72	2.73	2.73	2.72	2.73
주식형(국내)	-	683,399	683,359	680,569	685,323
주식형(해외)	-	261,428	261,727	262,063	262,464
채권형	-	465,890	468,615	468,312	469,197
고객예탁금	-	177,664	183,035	172,448	173,933
고객예탁금 회전율	-	28.72	25.84	39.90	40.52
순수예탁금 증감	-	-7,775	8,388	-1,060	-864
미수금	-	1,247	1,285	1,055	1,179
신용잔고	-	39,730	40,143	40,625	40,925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